

성장기 폭력경험과 대학생 성폭력 경험의 관계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배 화 옥*
(경상대학교)

최 재 희
(경상대학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성장기 폭력경험이 성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공격성이 이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남녀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48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통계방법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여학생이 성폭력 피해경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성폭력 가해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에는 4개 유형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성장기 폭력경험을 부모폭력 목격경험과 아동학대 피해경험으로 분류한 후 성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경로에 공격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으며 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성장기 폭력경험은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성은 피해경험에 있어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격성은 성폭력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남녀 대학생, 성폭력 경험, 성장기 폭력경험, 공격성

본 논문에 앞서 2011년 11월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대학생 성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교신저자: 배화옥, 경상대학교(hobae@gnu.ac.kr)

■ 투고일: 2012.10.31 ■ 수정일: 2012.12.10 ■ 게재확정일: 2012.12.20

I. 서론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성을 매개로 사람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손승아, 2004). 성폭력은 대학생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Harned, 2002). 대학에서는 이성과의 교제가 통제되지 않고 만남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학과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과 같이 이성을 접촉할 기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성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이성과의 만남의 기회가 많은 것 외에도 대학생들의 개방적인 성문화, 성폭력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음주행태, 성폭력 기회로 악용될 수 있는 단체 활동에서의 놀이방식 등이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박옥임 외, 2004).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남녀 대학생이 경험하는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국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신뢰할만한 통계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남녀 대학生の 성폭력 경험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성폭력 유형, 측정 시기, 표본 등 개념정의와 방법론의 차이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Harned(2002)는 성폭력 조사연구에서 남녀 대학생 1,139명 가운데 여학생 39%와 남학생 30%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Gover 외(2008)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성폭력을 포함한 고등학생과 대학生の 데이트폭력 경험비율을 9~87%로 매우 큰 폭으로 보고하기도 한다(Gover et al., 2008). 국내 연구에 의하면 이지연과 이은설(2005)은 성폭력 유형에 따라 가해경험 20.5~42.6%, 피해경험 6.0~32.0% 수준으로 보고하고 있다. 김동기(2009)의 연구에서는 성적폭력 가해행동 비율이 1.9%에 불과하나, 김은경과 엄애선(2010)의 연구에서는 유형에 따라 남학생 가해경험 11.9~27.5%, 여학생 피해경험 12.1~32.1%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개인 차이는 있으나 신체적 손상 외에 불안감, 우울, 낮은 자존감,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노출하거나 심하게는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박옥임 외, 2004; Gover et al., 2008; White et al., 2008). 또한 성폭력 피해경험은 결혼을 한 후 부부갈등과 가정폭력과의 연관성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flieger & Vazsonyi, 2006). 성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가해자의 경우 대인관계 문제, 죄책감, 인지 왜곡, 공감 결여 등이

나타난다. 특히 충동적으로 성적 가해행동을 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심한 수치심을 갖게 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 유지가 어려우며, 의사소통 문제로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등 부적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White et al., 2008).

이처럼 성폭력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개인적인 성문제 심지어 사랑의 행위로까지 인식되어 크게 사회 문제화 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이다(강희순·이은숙, 2010; 손승아, 2004).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이를 노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치심이 작용한다고 보아지며 외부에 알렸다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나 개입이 가능치 못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박옥임 외(2004)는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 개인 문제로 치부하려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까지 성폭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이다(강희순·이은숙, 2010; 이지연·이은설, 2005). 또한 여성은 성폭력의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많은 경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실제 대다수 연구에서 여성이나 여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강희순·이은숙, 2010; Hamed, 2002; Jackson, 1999). 그러나 이는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여성도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이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폭력적일 수 있으며, 폭력 유형에 따라 남성 이상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정향미(2004)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성희롱 피해경험은 여학생이 77.2%로 남학생 62.6%에 비해 높았다. 반면 성희롱 가해경험은 남학생 84.3%, 여학생 58.4%로 남학생의 가해경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지만, 여학생의 가해경험 비율도 그다지 낮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2012)가 공표하는 전국적인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인남성이 성폭력 가해자인 비율이 82.1%, 성인여성이 피해자인 비율이 63.8%를 차지하고 있으나, 성인남성이 성폭력 피해자인 비율도 3.9%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외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 30%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어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Hamed, 2002). 따라서 성폭력을 연구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을 따로 조사하는 것과

피해경험 비율 혹은 가해경험 비율 어느 하나만을 파악한 후 어느 쪽이 더 폭력적이라고 결론짓는 일은 위험한 일이며, 남성과 여성 모두 피해자로서 및 가해자로서의 경험을 묻는 것이 성폭력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길이다(Jackson, 1999).

그동안 성폭력 경험과 영향요인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외 연구에 의하면 폭력허용도가 남자 대학생의 성폭력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Carr & VanDeusen, 2002), 상호공격과 동거와 같은 상황적 요인(Harned, 2002)이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Harned, 2002),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남성의 성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hite et al., 2008). 국내 연구에서는 성폭력 허용도와 성폭력 인식도(강희순 · 이은숙, 2010; 이지연 · 이은설, 2005), 강간 통념과 성역할 수용도(이지연 · 이은설, 2005), 데이트폭력 편견(정소영 외, 2011)이 성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는 요인이 성장기 폭력의 경험이다. 즉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적인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이후 형제폭력, 또래폭력, 데이트폭력 등 다른 유형의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김재엽 · 송아영, 2007; 배화옥, 2011; McCloskey & Lichter, 2003). 또한 성장기 폭력경험은 성폭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희순과 이은숙(2010)의 연구에서 부부폭력 노출 경험과 자녀폭력 피해대 경험의 정도를 부모의 폭력성으로 측정하였을 때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매개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다수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신체적 폭력이 아닌 성폭력 가해행동이나 성폭력 피해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여 매개변인을 규명한 연구는 수가 많지 않다.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역할태도(김은경 · 엄애선, 2010), 폭력허용도(김동기, 2009), 폭력허용도와 관계갈등의 매개효과(정소영 외, 2011) 통제경향과 성적 자기 주장성(이지연 · 이은설, 2005)이 관련 요인들과 성폭력 혹은 데이트 성폭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특히 성장기 폭력경험과 성폭력 사이에 매개요인을 규명한 연구로는 김동기(2009)와 김은경과 엄애선(2010)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가운데 공격성을 매개요인으로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성장기 폭력경험은 자녀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김재엽 · 송아영, 2007), 공격성은 또 다른 유형의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배화옥, 2011;

McCloskey & Lichter, 2003), 공격성은 성장기 폭력경험과 성폭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성폭력 특성을 탐구하는 차원에서 남녀 대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영향요인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는 성장기 폭력경험이 남녀 대학생의 성폭력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규명된 바 없는 공격성이 성장기 폭력경험과 성폭력경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료를 활용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성폭력 개념정의

성폭력 연구에는 연구자와 연구목적에 따라 성희롱(sexual harassment), 성폭행(sexual assault), 강간(rape), 성폭력(sexual violence, gender violence, sexual aggression) 등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고 있지만, 개념정의와 포괄범위에 있어 어느 정도 중첩되거나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 가령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언어, 포옹, 신체적 접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Friedman, 1992; 박옥임 외, 2004, p. 139 재인용). 성폭행(sexual assault, sexual aggression)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채 무력이나 위협으로 상대의 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관계, 성적 강요, 강간을 포함하고 있다(Abbey & Jacques-Tiura, 2011). 반면 성폭력(sexual violence)은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 언어적 희롱, 술과 약물의 힘을 빌린 성관계, 강간 미수와 강간, 기타 강요된 성행위 등 다양한 범위의 행동을 포함하였으며(White et al., 2008), 다른 연구에서는 성폭력을 성적 언어폭력, 성추행, 성적 권한남용, 강간 미수와 강간으로 구분하였다(Harned, 2002; Porter & Williams, 2011).

손승아(2004)는 성폭력을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단순한 언어폭력을 포함하여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성폭행, 강간 등이 있고 음란전화까지 포함하였다. 이지연과 이은설(2005)은 성폭력을

성적으로 흥미를 가진 파트너가 상대방의 거절을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심리적 압력이나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성적 응낙을 받아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김은경과 엄애선(2010)은 데이트 성폭력을 성적인 응낙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을 전제로 하여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하였다. 정향미(2004)는 성희롱 유형을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성적 강요행위로 구분하고 있어 성폭력 유형과 중첩됨을 알 수 있다.

개념정의에서 한 가지 공통된 핵심적 개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또 성폭력 유형은 언어적 성희롱, 음란전화, 문자메시지, 신체적 접촉, 성추행, 강간에 이르기까지 점차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성폭력은 언어, 도구, 신체를 매개로 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폭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성장기 폭력경험과 성폭력 경험

성장기 폭력경험이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주로 세 갈래로 이루어져왔다. 폭력 피해아동이 나타내는 우울증, 자존감 결여와 같은 내면화 문제, 비행, 학업부적응과 같은 외현화 문제,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전이이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성장기 폭력경험이 다른 형태의 폭력을 낳는다는 폭력의 세대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가설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Bandura(1973)의 사회학습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행동은 관찰과 모방에 의해 학습되고 강화된다는 것이다. 폭력의 세대간 전이 가설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성장기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이후 형제폭력, 또래폭력, 부모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송아영, 2007; 배화옥, 2011; McCloskey & Lichter, 2003).

사회학습이론은 성장기 폭력경험이 후일 성폭력 경험에 잠재적 영향이 있음을 설명해 준다. 실제 성장기 폭력경험은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이나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성장과정에 부모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후 데이트상대에게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더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정, 2003; Gover et al., 2008; Gover et al., 2011). 특히 성장기에 심리적 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여학생은 이후 성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폭력 경험이 없는 여학생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Brugger et al., 2006). 또한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거

나 성학대를 경험한 남성은 데이트 상대에게 성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hite et al., 2008).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부모폭력 목격이나 학대경험이 남학생들의 성폭력 가해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Carr & VanDeusen, 2002).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지연·오경자, 2007; 정혜정, 2003), 부모의 폭력성이나 부부폭력 목격은 대학생의 성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강희순·이은숙, 2010; 김은경·엄애선, 2010; 박하나·장수미, 2012). 그러나 아동학대 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 간 폭력 목격은 성폭력을 포함한 데이트폭력에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김동기, 2009)도 있다. 따라서 성장기 폭력경험을 폭력목격과 아동학대로, 성폭력 경험을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으로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매개요인으로서 공격성

성장기 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혹은 성폭력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왔다. 연구를 살펴보면 자존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데이트폭력을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Pflieger & Vazsonyi, 2006), 성적 자존감, 성적 관심, 위험한 성행동이 성장기 폭력경험과 성폭력 경험을 매개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Bruggen et al., 2006). 국내 연구에서는 통제경향과 성적 자기 주장성(이지연·이은설, 2005), 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조절(이지연·오경자, 2007), 폭력허용도와 관계갈등(정소영 외, 2011), 폭력허용도(김동기, 2009), 성역할태도(김은경·엄애선, 2010)가 데이트폭력 혹은 성폭력을 부분매개 혹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 폭력경험과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 사이 매개요인으로 공격성(aggression)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격성은 '상대에게 해를 주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정의된다(Lento-Zwolinski, 2007: 407). 또한 공격성은 수동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과 능동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실제 혹은 인식된 도발, 공격, 좌절에 대한 반응적 공격성으로 흔히 분노로 표출되며, 후자는 자기만족이나 쾌감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주도적 공격성을 의미한다(Vitaro et al., 2006: 15). 공격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반응적 공격성과 주도적 공격성 사이에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며, 반응적 공격성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주도적 공격성의 예측요인이 되는 반면, 주도적 공격성은 일정 시기가 지난 후 반응적 공격성의 예측요인이 되지 않는다(Vitaro et al., 2006). 특히 공격성에는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남성은 또래관계 혹은 집단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주로 물리적 방식으로 표출되는 능동적 공격성을 드러내는 반면, 여성은 상대로부터 공격을 경험한 후 관계를 단절하는 등의 반응적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Lento-Zwolinski, 2007). 따라서 폭력의 가해자에게서 나타나는 공격성은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자기만족이나 쾌감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된 능동적 공격성이지만, 폭력의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공격성은 반응적 공격성이라 할 수 있다. 즉 능동적 공격성이던 반응적 공격성이던 데이트폭력이나 성폭력 경험에 공격성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남성으로부터 성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대부분의 여성은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게 되며, 이러한 두려움과 분노는 가해자에 대해 폭력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지속되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과도한 폭력으로 반응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Jackson, 1999). 성폭력을 포함하여 데이트폭력을 구사하는 동기에 성별 차이가 드러나는데, 남성은 우위를 점하고자 혹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의도인데 반해 여성은 자기방어나 보복의 방편으로 폭력을 구사한다고 한다(Harned, 2002). 이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정황을 들여다보면 서로 폭력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와 가해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기제를 설명하고 있다(Gover et al., 2008).

선행 연구에 의하면 성장기 폭력경험과 공격성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장기 부모로부터 경험한 학대가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Howell & Rosenbaum, 2008). 강압적이고 처벌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적대감이나 공격성을 표출한다고 한다(Baldry & Farrington, 2000). 공격성이 다른 유형의 폭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매개하는 것을 규명한 연구에 의하면, 32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적대감과 공격성이 남자대학생의 신체폭력의 발생빈도를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nto-Zwolinski, 2007). 또한 성장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공격성을 매개로 형제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배화옥, 2011), 데이트폭력이나 부모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McCloskey & Lichter, 2003). 또한 성장기 폭력을 경험한 대학생은 공격적

인 갈등대처행동을 습득하게 되고 이는 데이트폭력 가해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정, 2003). 성장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은 통제성과 사회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공격적이고 폭압적인 태도와 여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습득한 후 데이트 성폭력으로 발전한다는 기제를 설명하기도 한다(White et al.,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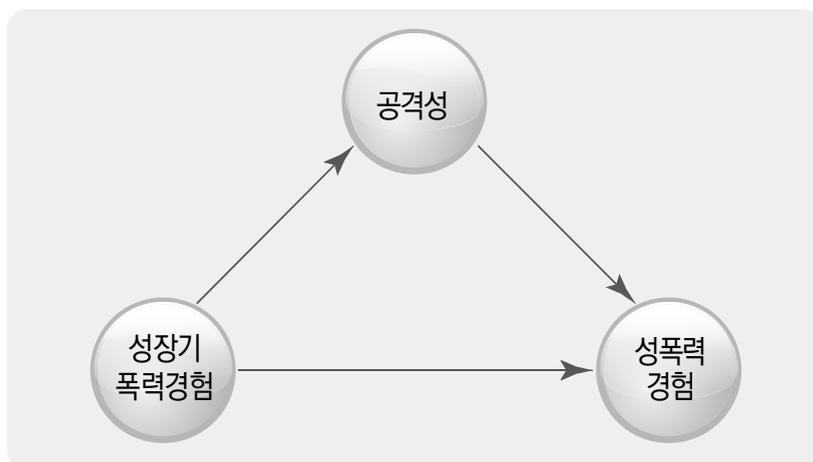
논의를 요약하면 성장기 폭력경험은 공격성을 강화시킬 것이고 강화된 공격성은 성폭력 경험으로 이어질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성장기 폭력경험과 성폭력 사이에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남녀 대학생의 성장기 폭력경험이 성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과정에서 공격성이 매개하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구성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만19세 이상의 성인이며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경상남도에 소재한 G대학을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전체 남녀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단과대학별 인원수에 비례하는 할당표집방식을 통해 50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대상 남녀 대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직접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외에 성장기 폭력경험, 지난 1년간 성폭력 경험, 공격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표지에 조사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조사는 2011년 9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 500부 가운데 대학원생 20명을 제외한 48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변수측정 및 조사도구

가. 성폭력 경험

성폭력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외(1996)의 수정갈등대처척도(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CTS2)를 활용하였다. CTS2 척도에 포함된 성폭력 유형은 음란전화 및 음란문자, 성희롱, 가벼운 추행(몸 만지기), 심한 추행(강제 키스, 포옹, 애무), 강간미수, 강간이다. 성폭력 문항은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물어본 것으로, 각 문항의 범주는 ‘없음’, ‘1~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 척도를 활용한 김은경과 엄애선(2010)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0.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81이었다.

나. 성장기 폭력경험

성장기 폭력경험은 부모폭력 목격경험과 아동학대 피해경험으로 나누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1979)의 갈등대처척도(Conflict Tactics Scale, CTS)를 사용하였다. 원래 CTS는 총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폭력 4문항, 심리적 폭력 3문항, 신체적 폭력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범주는 ‘없음’,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의 매일’로 구분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부모폭력 목격 0.86, 아동학대 경험 0.90이었으며,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김동기(2009)의 연구에서는 각각 0.89, 0.86이었다.

다. 공격성

공격성은 Buss와 Perry(1992)가 만든 공격성 척도(Aggression Questionnaire) 가운데 신체적 공격성 5문항과 언어적 공격성 2문항을 선택하였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신뢰도 계수는 0.70이었으며, 동일한 척도를 활용한 배화옥(2011)의 연구에서는 0.81이었다.

4. 자료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실행하였다. 성폭력 경험의 성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카이제곱검증을 활용하였다.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에 대한 성장기 폭력경험의 영향과 매개요인의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병행하였다. 매개변수 검증은 Baron & Kenny(1986)의 매개변수 검증방법을 활용하였다. 매개변수 검증방법은 ① 독립변수(성장기 폭력경험)가 종속변수(성폭력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② 독립변수가 매개변수(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③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④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매개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할 때 ②와 ③의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의 통제 이후 효과가 없다면 완전매개(complete mediation)가 되고, 매개변수 통제 이후에도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지 않으면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가 된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응답자 480명 가운데 남학생은 53.3%이며 여학생은 46.7%였다. 평균연령은 22.1세이며 18세에서 27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학년은 1학년 13.1%, 2학년 24.0%, 3학년 33.8%, 4학년 29.2%였다. 응답자 절반에 이르는 46.0%가 자취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택 26.5%, 기숙사 20.4%, 하숙과 기타 7.1% 순으로, 4명 가운데 3명이 집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다. 친구·선후배와 동거하는 비율이 39.0%로 가장 높고, 부모·형제·친척 등 가족과 사는 비율이 34.3%로 다음으로 높았으며, 혼자 사는 비율도 26.3%나 되었다. 여학생이 혼자 사는 비율이 26.8%로 남학생 25.8%에 비해 약간 높았다.

2. 성폭력 경험 특성

가. 성폭력 경험 수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대학생들의 성폭력 경험 수준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가해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응답비율은 15.4%, 피해경험 응답비율은 26.0%로 피해경험 비율이 가해경험 비율에 비해 2배 가까이 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해경험의 경우 성희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3.8%였다. 성희롱을 제외하고 다른 유형은 5.0% 미만이었다. 성폭력 피해경험의 유형은 가해경험과 마찬가지로 성희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5.4%였다. 가해경험과의 차이점은 음란전화 및 문자와 가벼운 성추행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성희롱 비율에 준한다는 점이며 각각 13.8%와 12.8%였다. 특히 강간 미수와 강간 가해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이 각각 2명씩, 강간 미수와 강간 피해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이 10명, 8명으로 나타났다.

표 1. 성폭력 유형별 경험비율

(단위: 빈도, %)

유형	가해경험			피해경험			전체
	없음	1~2회	3회+	없음	1~2회	3회+	
음란전화 및 문자	473(98.5)	6(1.3)	1(0.2)	414(86.3)	42(8.8)	24(5.0)	100.0(480)
성희롱	414(86.3)	56(11.7)	10(2.1)	406(84.6)	58(12.1)	16(3.3)	100.0(480)
가벼운 성추행	465(96.9)	9(1.9)	6(1.2)	421(87.2)	52(11.0)	7(1.8)	100.0(480)
심각한 성추행	474(98.8)	4(0.8)	2(0.4)	454(94.6)	22(4.6)	4(0.8)	100.0(480)
강간미수	478(99.6)	2(0.4)	-	470(97.9)	7(1.5)	3(0.6)	100.0(480)
강간	478(99.6)	2(0.4)	-	472(98.3)	6(1.3)	2(0.4)	100.0(480)
경험 총합	406(84.6)	74(15.4)		355(74.0)	125(26.0)		100.0(480)

나. 성폭력 경험 성별 차이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 수준을 성별로 비교하였다. 남학생의 가해경험 비율은 16.8%로 여학생 13.8%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chi^2=0.801$, $p=0.371$). 그러나 피해경험 비율은 남학생 17.6%, 여학생 35.7%로 나타나 성별 차이가 뚜렷하였다($\chi^2=20.402$, $p<.001$). 남녀 대학생의 성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교차하여 경험유형을 분류하였을 때, 가해경험만 있는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피해경험만 있는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2). 남학생의 가해경험 비율이 7.0%로 여학생의 2배였으며, 여학생의 피해경험 비율이 25.4%로 남학생의 3배 이상이었다. 동시에 여학생 3.6%가 가해경험을, 남학생 7.8%가 피해경험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둘 다 하였다는 비율에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2. 성별 성폭력 경험 분포

(단위: 빈도, %)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없음	193(75.4)	136(60.7)	329(68.5)
가해	18(7.0)	8(3.5)	26(5.4)
피해	20(7.8)	57(25.4)	77(16.0)
가해·피해경험	25(9.8)	23(10.3)	48(10.0)
전체	100.0(256)	100.0(224)	100.0(480)

Chi-square=29.582 p<.000

성폭력 유형에 따라 성별 경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해경험은 6개 유형 모두 성별 차이가 없었으나, 피해경험은 음란전화 및 문자,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각한 성추행의 4개 유형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표 3). 4개 유형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 유형별 성폭력 경험 분포

(단위: 빈도, %)

구분	가해경험			피해경험		
	남학생	여학생	χ^2	남학생	여학생	χ^2
음란전화 및 문자	4(1.6)	3(1.3)	0.041	22(8.6)	44(19.6)	12.298 ***
성희롱	39(15.2)	27(12.1)	1.019	29(11.3)	45(20.1)	7.032 **
가벼운 성추행	10(3.9)	5(2.2)	1.106	14(5.5)	45(20.1)	23.688 ***
심각한 성추행	4(1.6)	2(0.9)	0.434	7(2.7)	19(8.5)	7.704 **
강간미수	2(0.8)	0(0.0)	1.757	3(1.2)	7(3.1)	2.234
강간	1(0.4)	1(0.4)	0.009	3(1.2)	5(2.2)	0.819

* p<.05 ** p<.01 *** p<.001

3. 성장기 폭력경험과 성폭력 경험

성장기 폭력경험이 남녀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진단하고자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부모폭력 목격과 아동학대 경험 간에 상관계수가 매우 커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따라서 성장기 폭력경험을 부모폭력 목격과 아동학대 경험으로 분리하고 성폭력 경험을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으로 분리하여 폭력목격-가해경험, 폭력목격-피해경험, 아동학대-가해경험, 아동학대-피해경험의 4개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표 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행렬

구분	폭력목격	학대경험	공격성	가해경험	피해경험
폭력목격	1				
학대경험	.706**	1			
공격성	.122**	.126**	1		
가해경험	.129**	.190**	.305**	1	
피해경험	.193**	.173**	.134**	.435**	1

** p<.01

성장기 폭력경험이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대학생의 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부모폭력 목격과 학대경험은 남녀 대학생의 성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성별은 성폭력 피해경험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피해경험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장기 폭력경험과 성폭력 경험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폭력목격-가해경험		아동학대-가해경험		폭력목격-피해경험		아동학대-피해경험	
	b	β	b	β	b	β	b	β
상수	0.255		0.224		-0.237		-0.249	
성장기 폭력경험	0.029**	0.134	0.040***	0.191	0.071***	0.178	0.065***	0.168
성별(여학생)	-0.077	-0.068	-0.071	-0.064	0.403***	0.193	0.422***	0.202
R2	0.021		0.040		0.074		0.071	
F	5.188**		9.922***		19.130***		18.218***	

4.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남녀 대학생의 성장기 폭력경험이 성폭력 경험 관계에 공격성이 매개하는지를 분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대학생의 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남녀 대학생의 성장기 폭력경험은 매개변수인 공격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은 종속변수인 성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표 6).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행한 결과 공격성의 통제 이후에도 독립변수인 부모폭력 목격과 아동학대 경험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미하여 부분매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Baron & Kenny, 1986).

표 6. 성장기 폭력경험과 성폭력 경험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 변수 (X)	매개 변수 (M)	종속 변수 (Y)	경로	b	s.e.	β	R ²	F	Sobel-z
폭력 목격	공격성	가해 경험	X → Y	0.029**	0.010	0.134	0.021	5.188**	
			X → M	0.142**	0.047	0.135	0.040	9.972***	2.766**
			M → Y	0.062***	0.009	0.303	0.093	24.502***	
			X → Y(M 통제)	0.020*	0.009	0.095	0.102	18.027***	
학대 경험	공격성	가해 경험	X → Y	0.040***	0.009	0.191	0.040	9.922***	
			X → M	0.132**	0.046	0.130	0.039	9.667***	2.648**
			M → Y	0.062***	0.009	0.303	0.093	24.502***	
			X → Y(M 통제)	0.032***	0.009	0.155	0.117	20.953***	
폭력 목격	공격성	피해 경험	X → Y	0.071***	0.018	0.178	0.074	19.130***	
			X → M	0.142**	0.047	0.135	0.040	9.972***	2.356*
			M → Y	0.064***	0.017	0.168	0.071	18.102***	
			X → Y(M 통제)	0.063***	0.018	0.158	0.095	16.638***	
학대 경험	공격성	피해 경험	X → Y	0.065***	0.017	0.168	0.071	18.218***	
			X → M	0.132**	0.046	0.130	0.039	9.667***	2.282*
			M → Y	0.064***	0.017	0.168	0.071	18.102***	
			X → Y(M 통제)	0.057***	0.017	0.148	0.092	16.109***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함의

1. 요약 및 해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성장기 폭력경험이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공격성이 이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함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지난 1년간 성폭력 가해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비율은 15.2%, 피해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는 비율은 26.4%였다. 가해경험 비율은 남학생 16.8%, 여학생의 13.8%였으며, 피해경험 비율은 남학생 17.6%, 여학생 35.7%였다. 조사대상, 측정시기, 표집방법이 일치하지 않아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겠으나 이지연과 이은설(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남학생의 가해경험 비율 74.3%, 여학생의 피해경험 비율 39.4%에 비하면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둘째, 성폭력 피해경험에는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가해경험에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이 가해경험을 응답할 때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는 태도(socially desirable response)가 반영되어 실제 응답이 누락되었을 가능성과 여성이 가해경험을 응답할 때 남성에게 비해 사회적으로 낙인감이 덜 하여 응답이 부가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Gover et al., 2008) 성폭력의 피해는 여성이 더 입는 것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셋째, 성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교차하여 경험유형을 분류하였을 때, 남학생의 가해경험만 있는 남학생 비율이 6.8%, 피해경험만 있는 여학생 비율이 26.0%로 나타나 성별 차이가 뚜렷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의 가해경험 비율과 남학생의 피해경험 비율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는 것과 가해 및 피해를 둘 다 경험했다는 응답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면,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관점을 수정해야 할 여지가 있으며,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음에 학문적 및 실천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성폭력 유형별로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모두에서 성희롱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지연과 이은설(2005)의 연구에서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심리·언어적 폭력 32.0%, 신체적 접촉과 같은 경미한 성적 폭력 12.4%, 강압적 성관계와 같은 심각한

성적폭력 6.0%로 나타나 어느 정도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즉 가벼운 성폭력이 더 빈번하고 심각한 성폭력의 빈도가 낮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Jackson, 1999). 그러나 여학생의 피해경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음란전화 및 문자, 성희롱, 성추행 피해경험 비율이 20%로 거의 차이가 없다. 가벼운 언어적 성폭력이나 가벼운 성추행은 심각한 신체폭력이나 심각한 성폭력에 선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심리폭력이 언어폭력을,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 이어지는 즉 강도가 약한 폭력이 강도가 큰 폭력을 야기하는 폭력의 유인효과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회귀분석 결과 성장기 폭력경험은 대학생의 성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기 폭력이 성폭력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문헌고찰을 통하여 성장기 폭력 경험은 여러 다른 유형의 폭력으로 나타남을 논의한 바 있다. 즉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아동학대를 경험하거나 간에 성장기 폭력경험은 장기적으로 다른 유형의 폭력을 낳는다는 폭력의 세대간 전이 가설을 다시 한 번 더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경험에 있어서 성은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져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폭력 피해를 더 입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성장기 폭력경험이 공격성을 통해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검증하였다. 공격성은 성장기 폭력경험과 성폭력 경험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성장기 폭력경험은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공격성을 통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공격성과 성폭력 경험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이론적 배경에서 행한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즉 성폭력 가해경험에는 주도적 공격성이, 성폭력 피해경험에는 반응적 공격성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이 성폭력 가해행동을 하였을 때 폭력에 대한 반응적 가해행동인지 즉 반응적 공격성이 작용한 것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 가운데 하나는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 응답방식을 활용한 조사이기 때문에 성폭력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응답빈도에 오차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음란전화·문자와 언어적 성희롱의

차이를 중복했거나, 성희롱과 가벼운 성추행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응답빈도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조사문항의 신뢰도는 문제가 없으나, 여학생의 강간 가해경험 응답(1명)과 남학생의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경험에 대한 응답(6명)은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의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오류로 남는다. 또 하나 성장기 폭력경험에 대해 회고식 응답으로 인해 측정오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횡단조사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계방법은 변인간의 인과관계성을 설정할 수 없음도 제한점에 해당된다. 또 다른 제한점은 1개 종합대학교의 전체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다른 대학이나 다른 지역으로 일반화시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면 첫째,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문항이 없어 구체적인 성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기 어려웠다.¹⁾ 보통 신체적 폭력은 지속적인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성폭력은 낯선 사람이거나 오래 알고지낸 관계에서까지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White et al., 2008),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친밀한 사이인지 성폭력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면 보다 구체적인 성폭력 경험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폭력 가해·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적·정황적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대학교 여학생들의 데이트성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최근의 연구(박하나·장수미, 2012)에 의하면 음주사용이 원하지 않는 성폭력 피해를 불러오는 것과, 음주량이 데이트성폭력 피해를 예측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기 폭력경험과 대학생의 성폭력 경험 관계에 공격성이 매개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인으로 검증된 공격성을 조절하는 다른 변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조절변인을 규명하게 되면 공격성 저하를 논의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얻을 것이다.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성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및 성차별 문화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성폭력 문제해결의 출발도 개인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묵인하는 사회 전반적인 문화와 제도의 변화를 함께

¹⁾ 분석 결과 성폭력 가해 대상자 즉 피해자에 대한 응답은 19명, 성폭력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한 응답은 42명임. 절대 수치가 적어 성별 교차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얻지 못하였음.

수반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손승아, 2004). 같은 맥락에서 대학가에서도 성폭력에 대하여 제도적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인식개선 프로그램,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성장기 폭력경험과 성폭력의 매개변인으로 나타난 공격성을 신체활동이나 건전한 놀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정서적 활동 및 신체적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배화옥은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국립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학대, 아동빈곤, 학교폭력이며, 현재 다문화아동의 학교폭력 경험, 독일의 아동학대 재발생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hobae@gnu.ac.kr)

최재희는 국립경상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분야는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과 청소년 또래폭력이다.

(E-mail: jin4994@hanmail.net)

참고문헌

- 강희순, 이은숙(2010).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과 관련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지, 27(3), pp.75-84.
- 김동기(2009). 가정폭력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6(6), pp.135-159.
- 김은경, 엄애선(2010).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pp.759-777.
- 김재엽, 송아영(2007). 가정폭력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3, pp.99-125.
- 박옥임, 김정숙, 강희순(2004). 성별에 따른 대학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 및 인지도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5(3), pp.137-148.
- 박하나, 장수미(2012). 성장기 부모간폭력목격 경험과 데이트성폭력피해의 관계: 피해여대생 음주행동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pp.149-176.
- 배화옥(2011). 아동의 학대경험이 형제폭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아동복지학, 34, pp.7-30.
- 손승아(2004). 대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심리건강교육. 여성건강, 5(2), pp.87-103.
- 이지연, 오경자(2007). 아동기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폭력에 대한 태도와 분노 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pp.433-450.
- 이지연, 이은설(2005).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pp.419-436.
- 정소영, 임채영, 이명신(2011).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편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폭력허용도와 관계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7(4), pp.127-151.
- 정향미(2004). 남녀 대학생의 성희롱 피해 가해경험과 영향요인 분석. 아동간호학회지, 10(3), pp.291-299.
- 정혜정(2003).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pp.1-19.

-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201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한국성폭력상담소.
- Abbey, A., Jacques-Tiura, A. J. (2011). Sexual assault perpetrators' tactics: Associations with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aspects of the incid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4), pp.2866-2889.
- Baldry, A. C., Farrington, D. P. (2000). Bullies and delinqu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arental styles.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0, pp.17-31.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 Baron, R. M.,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 Bruggen, L. K. V., Runtz, M. G., Kadlec, H. (2006). Sexual revictimization: The role of sexual self-esteem and dysfunctional sexual behaviors. *Child Maltreatment*, 11(2), pp.131-145.
- Buss, A. H.,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pp.452-459.
- Carr, J. L., VanDeusen, K. M.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of origin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in college 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6), pp.630-646.
- Gover, A. R., Kaukinen, C., Fox, K. A.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in the family of origin and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12), pp.1667-1693.
- Gover, A. R., Park, M. R., Tomsich, E. A., Jennings, W. G. (2011).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among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A focus on gender and childhood maltreat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6), pp.1232-1263.
- Harned, M. S. (2002). A multivariate analysis of risk markers for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11), pp.1179-1197.

- Howells, N. L., Rosenbaum, A. (2008). Effects of perpetrator and victim gender on negative outcomes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 pp.203-209.
- Jackson, S. M. (1999). Issues in the dating violence researc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2), pp.233-247.
- Lento-Zwolinski, J. (2007). College students' self-report of psycho-social factors in reactive forms of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24(3), pp.407-421.
- McCloskey, L. A., Lichter, E. L. (2003). The contribution of marital violence to adolescence aggression across diffe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4), pp.390-412.
- Pflieger, J. C., Vazsonyi, A. T. (2006). Parenting processes and dating violence :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in low- and high-SES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9, pp.495-512.
- Porter, J., Williams, L. M. (2011). Intimate violence among underrepresented groups on a college campu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6), pp.3210-3224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pp.75-88.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pp.283-316.
- Vitaro, F., Brendgen, M., Barker, E. D. (2006). Subtypes of aggressive behavior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1), pp.12-19.
- White, J. W., McMullin, D., Swartout, K., Sechrist, S., Gollehon, A. (2008).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 A conceptual and empirical examination of sexual and physical aggress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 pp.338-351.

Family Violence Experience and Sexual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Bae, Hwa-o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oi, Jae-he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of sexual violence between sex, to examine whether family violence has effects on sexual violence, and to test whether aggression mediates family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with quota sampling method targeting all the students at one university in Gyeongsangnamdo. The survey resulted in 500 university students for study sample. This study analyzed 480 respondents excluding graduate students. Among the respondents, female students responded higher rate of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and male students responded higher rate of sexual violence perpetration.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rates of perpetration among female students and victimization among male student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ested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between family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aggression has a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family violence experience and sexual violence. Stud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Keywords: University Students, Sexual Violence, Family Violence Experience, Aggression